

자료제공 : 2023. 01. 04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

총무과장	조영창	2133-5605
서무팀장	손인호	2133-5607
담 당 자	이지훈	2133-5611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5매

### 오세훈 시장, "새로운 시도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"

- 직원 450여 명과 '23년 신년 직원조례...‘슬기로운 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’ 특강
- ‘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’ 위해 과감하게 시도하는 퍼스트 무버 돼야...부서 간 협력 중요
-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‘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’ 소개

- 오세훈 시장이 2023년 계묘년(癸卯年) 새해를 맞아 서울시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인 ‘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’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밝혔다.
- 오세훈 시장은 4일(수)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시 본청,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 등 직원 450여 명과 함께 「2023 신년 직원조례」를 갖고, ‘슬기로운 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’를 주제로 특강했다. 서울시가 더 행복한 일터가 되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위한 구상을 약 20분 간 프레젠테이션(PT)을 통해 소개했다.
- 신년 직원조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게 됐다.

- 오 시장은 “2023년은 국운상승기”라고 화두를 던지고, 정점에 도달한 이후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유지·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특히, 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인 ‘동행·매력 특별시’를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“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”며, 서울시 직원들이 ‘퍼스트 무버’가 되자고 전했다.
- 오 시장은 “트렌드를 읽고 재빠르게 간파해서 다른 도시, 다른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. 그러려면 실패할 생각을 감내하고 저지르자. 2023년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해로 만들자”고 밝혔다.
- 또한, 오 시장은 “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려면 그동안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”며 “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이뤄지면 작품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
- 이와 관련해 창의행정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의 하나로, 이지현 서울시 비전전략수석이 ‘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’를 발표했다.
-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하철역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, 하루 59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.

○ 예컨대, 한강공원과 가까운 역사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‘여의나루역’은 러너(runner)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. 최근 카페, 전시, 패션 등 MZ세대 명소로 떠오른 ‘신당역’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비보잉과 스케이트보드 중심의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.

□ 한편,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‘2022 서울시 10대 뉴스’ 1~5위 부서에 시상하고, 작년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선도적·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직원들을 격려했다.

○ 선정된 정책은 ▲1위 모아주택·모아타운(전략주택공급과) ▲2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(양성평등담당관) ▲3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(디지털정책담당관) ▲4위 책읽는 서울광장(서울도서관) ▲5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+(1인가구담당관)다.



오세훈 서울시장 직원 특강 - 「즐거로운 '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' 만들기」



오세훈 서울시장 직원 특강 - 「즐거로운 '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' 만들기」

